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7호 9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7 호(255)

1964년 9월 (상)

(반 월 간)

차 례

분렬을 가져 올 각국 당들의 회의는 저지시켜야 한다

(《로동 신문》 사설)

오늘 국제 정세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은 날을 따라 장성하고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민족적 독립과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혁명 투쟁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반제 혁명 력량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는 날로 궁지에 몰려 들어 가고 그 지반은 더욱더 약화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침략 및 전쟁 책동은 도처에서 파탄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 하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혁명 력량이 더욱 단결한다면 세계 혁명의 위업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으로 말미암아 최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형제당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출발한 의견 상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오늘에 와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 사회주의 나라들 간의 국가적 관계에까지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혁명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친선과 전투적 단결은 심대한 손상을 당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이러한 사태는 진정으로 혁명의 리익과 로동 계급의 위업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분렬을 방지하고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현시기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긴절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 당은 일련의 형제당들과 함께 의견 상이가 발생한 시초부터 이것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내부적 문제로서 진지하고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단결을 위하여 모든 당들이 신중하고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형제당들의 진심으로 되는 간곡한 권고와 제의들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더욱더 오만하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을 함부로 위반하면서 자기들의 그릇된 주장을 계통적으로 형제당들에 강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를 적들의 면전에서 공개적인 론쟁으로 전변시키고 출판물과 온갖 기회를 통하여 형제당들을 비난하며 중상 공격하였다.

그들은 형제당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위반하면서 자기에게 추종하지 않는 당들에 대하여 각종 압력을 가하며 배후에서 타격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립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 형제당들 간, 형제 국가들 간의 관계는 오늘 전례 없이 악화되게 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급작스레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와 그를 위한 준비 회의 소집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나섰다.

지금 조성된 복잡한 정세 하에서 조급하게 국제 회의를 소집하려는 데는 분명히 딴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 회의는 결국 분렬을 위한 회의로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오늘의 형편에서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의 리익에 그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1960년 회의 성명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형제당들은 필요에 따라 공동의 목적을 위한 투쟁에서 견해와 행동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는 응당 통일을 위한 회의로 되여야 하며 단결의 목적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국제 회의를 지지하여 왔다.

모든 당들이 진실로 통일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견과 경험을 허심하게 교환하며 집체적 노력을 경주한다면 형제당들의 회의는 공동 위업에 대한 일치한 견해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를 소집하는 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 시기에 이르러 의견 상이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으며 형제당들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그들은 형제당들과 형

제 나라 내정에 계속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맑스-레닌주의당들을 반대하는 파괴 행위와 분렬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오늘 자기와 의견을 달리 하는 형제당들을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면서 이러한 당들에 대하여 집단적 조치와 정치 조직적 대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초미의 문제라고 로골적으로 언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이러한 정황 하에서 오늘 형제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동지적 분위기 속에서 허심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의견 상이의 해결 방도를 탐색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오늘의 형편에서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가장 격렬한 론쟁을 야기시키는 마당으로 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렬 외에 다른 아무러한 결과도 가져 올 것이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형제당들이 현 조건 하에서는 국제 회의를 소집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맑스-레닌주의자들과 함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렬을 초래할 이러한 국제 회의의 소집을 반대하며 그러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강화할 수 있는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만이 로동 계급의 리익과 단결의 요구에 부합된다.

형제당들의 새로운 국제 회의가 진실로 통일과 단결을 위한 회의로 되게 하려면

첫째로,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와 준비 회의 소집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부 사람들이 맑스-레닌주의당들에 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무원칙한 공격과 분렬 행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통일》의 위선적 언사 뒤에서 형제당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분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며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회의의 성과적인 준비를 위하여서는 또한 형제당들의 필요한 접촉과 협의를 진행하여 점차 호상 리해를 접근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모든 당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와 준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과 동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준비 사업은 일정한 시간과 인내성과 성실성을 필요로 한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다만 론쟁을 가일층 격화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불가피하게 공개적 분렬의 길로 떠미는 행동으로 된다.

형제당들 간의 의견 상이를 오늘과 같이 첨예화시킨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신중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응당 자기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립장에서 리탈하였는가 않았는가, 각국 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정신을 저버렸는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책임 지는 립장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자신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정신에 배치되게 행동하면서도 남이 다 그릇되고 남이 분렬 활동을 한다고만 떠들어 댄다면 론쟁은 더욱 격화될 따름이고 언제 가서도 합의에 접근하지 못 할 것이다.

형제당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에 도리여 충고한 당들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공격하고 내리누르며 나아가서 집단적 조치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들 간의 고유한 동지적 관계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자기 과오를 묵과하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게 시정하는 것이 혁명적 당의 표징이라고 한 레닌의 교시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분렬 활동을 일삼은 사람들은 응당 형제당들의 충고를 허심하게 접수하며 자기의 과오에 대하여 대담하게 자기 비판을 하여야 한다.

더우기 오늘 론쟁이 적들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과오를 시인하는 것을 겁내 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을 어물어물 덮어 버릴 수도 없게 되였다.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범한 과오는 즉시 고쳐야 하며 이러한 정신에서 회의의 사전 준비 사업에 참을성 있게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국제 회의의 성과는 약속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직면한 난관으로부터의 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형제당들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에 대하여 진실로 념려한다면 의견 상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는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형제당들의 회의에 미리부터 어느 한 당의 립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형제당들의 새로운 국제 회의가 진정으로 통일과 단결에 기여하자면 형제당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모든 당들의 독자적 권리가 존중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국제 회의에서 토의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자기들의 립장을 강박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의 회의에서도 자기 주장을 내려 먹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다.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는 어느 한 당의 정책을 접수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소로는 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당들을 규탄하고 심판하거나 그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도

될 수 없다.

이미 오래 전에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에서 어느 한 당의 로선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 전반에 의무적인 것으로 내려 먹이려고 시도하다가 단호한 배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남에게 강박하는 이러한 대국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그 어떤 당을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 우에 올려 놓으며 다른 당들에 군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당들 간의 관계의 규범과 결코 량립될 수 없다.

선언과 성명에 규정되여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형제당들은 다 같이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여기에는 부여된 그 어떤 특권적 지위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크고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 받는 당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당도 중앙적 위치에서 다른 당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모든 당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자체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규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행동한다.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에서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남에게 내려 먹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는 당들을 심판하며 회의를 제멋 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형제당들 간의 협의의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며 회의 소집 자체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어느 당도 형제당들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작성되였으며 일치한 합의를 본 각국 당 대표들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정신에 배치되는 자기의 주장을 토의의 기초로 제기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발전시킬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당이란 없다.

모든 형제당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말하며 진지한 동지적 토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만 국제 회의는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회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국제 회의 준비 위원회를 단결의 리익에 복무하게 하려면 우선 그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초 우에서 구성하도록 모든 당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회의 소집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서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를 호전시킴에 있어서 준비 위원회 구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당도 모든 형제당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준비 위원회 성원을 선정할 권리가 없으며 더우기 그것을 다른 당들에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회의 소집을 조급히 서두르면서 형제당들과의 합의도 없이 1960년 모쓰크바 회의 편집 위원회 성원들로 새로운 국제 회의 준비 위원회 성원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회의 소집 장소와 시일까지 지정해 나서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었단 말인가.

이것은 완전히 비법적이며 오만한 월권 행위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1960년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구성되였던 편집 위원회는 모든 형제당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다만 그 회의를 위한 문헌 작성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이미 자기 사명을 다했으며 따라서 그 자체의 존재도 끝났다. 그 누구도 이에 상설적인 기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형제당 대표들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선정된 편집 위원회 성원들을 기계적으로 다음번 국제 회의 준비 위원회 성원으로 규정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

준비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형제당들 간에는 심각한 의견 상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준비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와 나아가서는 국제 회의 참가 대상 문제에 있어서도 형제당들 간에 신중한 토의들이 진행되여야 하며 반드시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로, 각국 당들의 회의는 어디까지나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엄격히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소집되여야 한다.

민주주의적 원칙, 이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본질 자체로부터 흘러 나오는 형제당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이며 단결의 초석이다.

형제당들 간의 관계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원칙이나 그 어떤 중앙 집권적 규률이 적용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것이 허용된다면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자각적이며 자원적인 단결을 기할 수 없을 것이며 대국주의적 전횡을 허용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중앙 집권적 규률을 강요하려고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 기계적인 다수의 의사에 빙자하여 형제당들의 동의 없이 강압적 방법으로 국제 회의 소집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시대 착오이며 인식 착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시도는 처음부터 엄중한 후과를 산생할 위험을 배태하고 있다.

만약 진실로 의견 상이를 극복하고 분렬을 방지할 것을 지향한다면 모든 당들이 일치하게 동의하는 조건 하에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 《다수》의 방패 밑에 강요되는 회의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을 배제하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분렬의 기정 사실 앞에 놓이게 할 것이다.

사실 상 조급히 국제 회의를 소집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의로 소위 편집 위원회 성원으로 선정한 26 개 당들 가운데서 그 어떠한 당들이 자기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의는 소집될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 당들은 스스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맑스-레닌주의당들을 제멋 대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떼 내고 어쩌고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배제 당할 당은 어데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는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의견 상이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다른 편으

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당들의 참가 없이도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통일에 대한 그 어떤 념원도 찾아볼 수 없다.

애당초 그렇게 할 바에는 무슨 협의가 필요하며 회의가 요구되겠는가.

의견을 달리 하는 당들이 참가하지 않는 그러한 회의가 그 무슨 의견 상이를 해결하며 단결을 위한 국제 회의로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행동은 사실에 있어서 로골적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을 분렬시키자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제반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 국제 회의의 간판 밑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조직적으로 분렬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새로운 국제 회의와 준비 회의 소집 문제에 대하여 최대의 신중성과 공정성과 원칙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지금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통일을 수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렬 책동을 허용하느냐 하는 엄숙한 시각을 겪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혁명적 원칙을 굽힐 수 없으며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에서 객관적 현실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들은 단합된 노력으로써 분렬을 위한 회의를 저지시켜야 하며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수호하여야 한다.

형제당들의 충고와 의견을 듣지 않고 끝끝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재난을 가져 올, 분렬을 위한 회의를 기어이 소집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개 당들이 세계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력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의 리익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숙히 호소한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단합된 투쟁 앞에서 분렬주의적 책동은 종국적으로 파탄되고야 말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맑스-레닌주의 기초 우에서 자기 대렬의 통일을 더욱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박 기 선

오늘 우리 당은 조성된 혁명 정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최근 년간 사상 교양 사업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사상 교양 사업의 리론 수준은 더욱 제고되고 그것은 혁명적 실천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되게 되였다.

이리 하여 당을 강화하는 사업도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집결시키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가고 있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 달성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것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들어 섰으며 이에 따라 긴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수다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후반기 전투에서 다시 한번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할 과업들이 나서고 있다.

이 모든 과업은 오직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을 더 높여야만 성과 있게 해결될 수 있다.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조국 통일의 위업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은 여지 없이 파탄되고 그의 주구들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였으며 조국 통일을 갈망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일'군으로 교양하며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시키는 것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사상 교양 사업을 조성된 혁명 정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 ✻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현시기 시급히 해결되여야 할 문제는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은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 오래 동안 깊이 뿌리박았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데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당 조직들의 지도에서 형식주의가 완전히 퇴치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일부 당 조직들의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는 형식주의가 철저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현시기 사상 교양 사업 지도에서 아직 남아 있는 형식주의는 주로 사상 교양 사업이 현실 생활과 유리되여 진행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사상 교양 사업이 현실과 유리되여 진행되는 것은 그의 내용 또는 형식과 방법의 두 측면에서 표현된다. 즉 내용에 대한 지도에서의 형식주의는 주로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 당 정책 교양,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이 호상 밀접히 결합되지 못 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으며 형식과 방법에 대한 지도에서의 형식주의는 해당 지역의 특성, 인민 경제 부문 별 생산 조건과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 사업에서 극히 부분적이나마 아직 남아 있는 이러한 부족점들은 오늘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주되는 장애로 되고 있다.

사상 교양 사업 지도에서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한 지도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의 기본은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세계관을 형성케 하며 모든 문제 해결의 리론적 바탕을 갖추게 하는 항구적이며 기초적인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항상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을 강화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그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은 다만 리론을 습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정당성을 철저히 연구 체득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은 반드시 당 정책 교양,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본질을 심오하게 체득시킬 수 있으며 리론 교양이 실지 혁명 과업과 사람들의 사상 의식 개조에 보다 성과 있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되여야만 당 정책의 본질과 그 수행 방도를 리론적으로 더 깊이 있게 리해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사상 개조 과정을 촉진시키고 그들의 앙양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공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 교양 사업에서 순수 리론 교양에만 치중하고 당 정책 교양과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반대로 당 정책 교양과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에만 치중하고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을 소홀히 하여도 안 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 당 정책 교양, 사상 교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을 당 정책 교양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며 다른 나라 당들의 투쟁 경험을 습득하는 것은 결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 문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하며 우리 투쟁에서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맑스주의적 리론, 관점,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형제 당들의 혁명 투쟁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230 페지).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그와 련관된 우리 당 정책을 결부시켜 연구하여야 하며 우리 당 정책을 학습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본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 정책 교양은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본질과 수행 방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높은 정치적 자각과 혁명적 기풍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당 정책을 알려 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자각성을 높이며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 교양이 반드시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의 내용에 대한 지도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 교양을 현실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저히 복종시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교양의 근본 목적은 당원들을 혁명 투쟁에로 발동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면 혁명 과업과 결부시켜야 하며 당원들의 실지 행동의 우결함과 결부시키면서 진행하여야 한다》(1960. 2. 18, 《새 환경에 적응하게 군 당 단체의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22 페지).

맑스-레닌주의자들이며 혁명적 실천자들인 우리에게는 공리공담만 일삼는 사상 교양은 하등의 필요가 없다.

당 앞에 어떤 과업이 나서고 주위 환경과 정세는 어떠하며 군중의 요구는 무엇이며 군중의 의사와 동향이 어떠하며 군중의 각오 정도가 어떠한가를 연구하지도 않고 객관적 현실과 군중의 요구에 유리되여 진행하는 사상 교양 사업은 우리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또한 이런 사상 교양 사업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실생활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상 교양 사업은 혁명 과업 수행과 당원들의 사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사상 교양 사업의 결과는 회수나 통계 수'자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당의 의도가 당원들에게 어떻게 파악되였으며 그것이 그들의 당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 건설에서 어떤 생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당원들의 사상 의식과 사회 도덕 생활에서 어떤 전변이 일어 났는가에 따라서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매개 당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 과업 수행과 사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풀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사상 교양 사업은 혁명 실천에 도움을 주는 생동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형식과 방법에서도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의 형식과 방법은 그 내용의 심화 발전에 복종되면서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발전한다. 즉 그것은 사상 교양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 대중의 준비 정도, 해당 시기 당 앞에 제기된 과업 등에 의하여 변화한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과 사상 교양 사업의 내용 상 심화에 상응하게 그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왔다.

오늘 사상 교양 사업 부문 앞에 제기된 임무가 크고 대중의 수준도 부단히 높아지고 있는 사실은 사상 교양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그 내용에 보다 적응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개별적 단위에 깊이 파고 들어 가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을 찾아 내여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실정이 각이한 사정과 관련된다.

공업, 농업, 림업, 수산업 등 인민 경제의 각 부문의 생산 조건과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은 각이하다.

례컨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부문과 일정한 조건에서 규칙적으로 생산하는 공업 부문과는 그 생산 조건이 서로 다르다.

동일한 인민 경제 부문인 경우에도 지역 별, 계절 별로 실정은 같지 않다. 즉 같은 농업에서도 평야 지대, 산간 지대, 도시 주변 등 지역 별로 사정이 다르며 같은 수산 부문에서도 동해안과 서해안은 어로 작업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와 농한기의 농업 근로자들, 해상 작업과 지상 작업을 하는 로동자들, 벌목과 류벌 작업을 하는 로동자들 호상간에는 그 생활 조건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이 다르며 그 성격, 체질, 취미, 희망들도 같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사상 교양 사업에서 일률적인 방법, 고정 불변한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특성과 대상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한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당은 최근 사상 교양 사업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첫째로, 정치, 기술 및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밀접히 결합하며 둘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준에 따라 어느 하나의 학습망에 망라시키며 세째로, 해당 부문의 생산 조직의 특성에 맞게 학습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양 사업 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사상 교양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밑의 당 조직들이 이 원칙을 견지하고 그것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할 때 사상 교양 사업은 더 생동하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된다.

례를 들면 학습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반들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토론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간부들과 선전 핵심들에 의거하여 개별적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습을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 주며 호조반들에서의 토론과 호상 방조를 강화하는 데로 깊이 들어 가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집체적 방법과 함께 개별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짜고 들어 교양하는 방법을 더욱 광범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 실정에 맞는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 교양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사상 생활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를 훌륭히 푸는 생동한 것으로 될 수 있다.

※ ※

사상 교양 사업 지도에서 제기되는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을 혁명적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사업도, 해당 지역의 실정과 해당 부문의 특성에 맞는 교양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탐구하는 사업도 결국은 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이것은 사상 교양 사업의 첫 공정이며 그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실정을 정확히 료해하여야만 사상 교양 사업을 그에 적응한 내용과 방법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할 수 있으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철저히 복무시킬 수 있다.

특히 매개 사람들의 정치 사상 의식 수준, 리론 수준, 사업 능력, 사회 정치 생활의 경위들을 정확히 료해 파악하는 것은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매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혁명에 얼마나 헌신하려 하는가를 모르고서는 그에 대한 옳은 《처방》을 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사상을 개조할 수 없고 혁명 과업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들은 해당 지방의 실정과 인민 경제의 부문 별 특성, 대상의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료해한 데 기초하여 사상 교양 사업의 내용을 옳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형식과 방법을 탐구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초급 단위들에서 선전 핵심 대렬을 더욱 확대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늘 사상 교양 사업 앞에 더 많은 과업이 나서고 있으며 사상 교양 사업을 매개 단위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정과 관련된다.

례컨대 학습 지도에서 호조반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군중 교양에서 개별적 대상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선전 핵심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들은 선전 핵심 대렬을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선전 핵심들의 대렬을 광범히 확대함으로써만 사상 교양 사업에서 구체적, 개별적 방법을 옳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만 사상 교양 사업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조직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선전 핵심 대렬이 질 량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여 매개 사람이 4~5 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맡아 잘 교양하게만 된다면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매개 당 조직들은 당성이 강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적이며 정치 리론적으로 준비된 당원들과 비당원 열성자들로 선전 핵심을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하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 조직들은 선전 핵심들을 각종 상설 교육 체계와 초급 선전원 강습반에 망라시켜 교양하는 동시에 한 급 높은 단위의 준비된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 그들과 직접 담화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면서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을 구체적 실정과 대상에 맞게 더 심화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직접 대상하며 교양 사업을 직접 조직 진행하는 군당 위원회, 공장 당 위원회, 리당 위원회 및 세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하는 사상 교양 사업의 방향과 기본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며 해당 지방의 실정과 부문 별 특성에 맞는 방법을 탐구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군당 위원회와 초급 당 조직들의 역할 여하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도 군당 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책임과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군당 위원회는 상급 당에서 제시되는 사상 교양 사업의 방향을 자기 지방과 인민 경제 부문 별 특성, 근로자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구체화하여 초급 당 조직들에 교양 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매개 부문 별로 우수한 모범을 창조하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함으로써 초급 당 조직들의 간부들로 하여금 자체 실정에 적합한 사상 교양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방조하며 그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당 위원회는 또한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서 초급 일'군들과 같이 사업하면서 사상 교양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 주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군당 위원회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인다면 리당, 세포들의 역할도 그에 따라 급속히 높아 질 것이며 따라서 우리 당의 사상 교양 사업은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욱더 심화 발전될 것이다.

오늘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당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와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

최 중 극

인민 경제의 구조와 경제 발전 속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당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리론 실천적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의 창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중요 내용으로 되며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된다.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와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과거 사회에서 넘겨 받은 락후성을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하고 나라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자면 반드시 자력 갱생의 원칙 밑에 자기 민족의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것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물질적 토대로 되며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는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얼마 전까지 일제 통치의 악독한 후과로 경제가 심히 락후하고 기형적이였으며 또 가렬한 전쟁까지 겪은 우리 나라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 경리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는 이것도 바로 우리 당이 나라의 경제 구조를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하여 온 것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오늘 원료의 채취로부터 기계 설비 및 소비품의 생산에 이르는 재생산의 전 행정이 하나의 완결된 생산 순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는 나라의 자립 경제 토대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해방 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부문 구조에서 일어 난 근본적인 변화와 그 과정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들은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은 나라들에서도 인민 경제를 능히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길만이 하루 속히 선진 국가들의 수준에로 올라 가 그들과 어깨 겯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시하여 주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인 부문

구조의 창설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는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망립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제한된 일부 생산 부문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리론적으로 무근거하며 실천적으로 극히 유해로운 것이다.

지난 시기 자립 경제 건설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한 우리 인민 앞에는 지금 새롭고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립적 부문 구조 창설에서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7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의 구조를 더욱 보충하고 완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과업을 보다 훌륭히 실현하여 나아가고 있다.

1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를 창설하는 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주요 측면을 이룬다.

자립적 민족 경제—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부단히 장성하는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켜 주며 나라의 자연 부원과 로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게 하며 기술적 진보와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한다.

모든 경제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창설할 때만이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주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국가들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의 창설은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기반 하에서 인민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심히 억제 당하였으며 그 결과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가질 수 없었던 나라들에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특별히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자면 이미 쟁취한 선진적인 사회 제도와 과거 사회에서 넘겨 받은 경제의 락후성, 일면성 간의 모순을 하루 속히 극복하고 자체의 물질적 생산의 기본 부문들을 창설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 경리를 가져야만 이 나라들은 주로 자체의 힘으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실현하고 전반적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도

모할 수 있으며 반제 력량과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 전통》이나 《자연 경제적 조건》 등등에만 매여 달려 일부 생산 부문만을 발전시키는 데로 나아간다면 경제의 락후성과 기형성을 퇴치하고 나라의 경제적인 자립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정치적 자주에도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세계의 대소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첫 시기부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 발전의 총방향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에 의하여 규정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생산 구조를 부단히 완성하는 방침을 정력적으로 관철하여 왔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달성된 제반 성과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에 의하여 규정되는 인민 경제 구조가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부단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우선 인민 경제에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그 지위를 부단히 확대함으로써 국민 소득의 장성을 촉진시킨다.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은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국민 소득의 장성이 없이 생산 규모의 확대와 인민 생활의 향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국민 소득의 장성 속도와 규모는 물질적 생산의 발전 속도와 규모에 의존한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물질적 생산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 그 중에서도 특히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 경제에서 그 지도적 지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 소득의 장성 속도를 촉진시키며 그 규모를 증대시킨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달성된 국민 소득 장성의 높은 속도는 이 과정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국민 소득의 장성 (%)

	1946년	1949년	1953년	1956년	1960년	1962년
국민 소득 총계	100	209	145	319	683	869
그 중 공업	100	408	238	647	26 배	35 배
농업	100	146	111	158	195	214
기본 건설		100	148	232	500	483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총체적으로 국민 소득의 높은 장성 속도가 보장되면서도 특히 공업이 창조한 국민 소득의 장성이 다른 물질적 생산 부문의 그것보다 비상히 높았다.

이것은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원천으로 되는 국민 소득의 장성이 인민 경제 구조의 완성화 과정, 공업의 급속한 발전 과정과 밀접히 결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 구조는 사회의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 생산적 축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조성한다.

다면적인 부문 구조의 창설은 기술적 진보와 직접 련관된 부문들의 계획적인 발전과 결부되여 있다.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화학 공업 등의 창설과 그 급속한 발전은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재장비하며 생산에 새 기술을 부단히 공급하며 새로운 경제적인 재료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생산적 고정 폰드의 계획적인 확대 재생산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소득의 증대에 따라 급속히 장성하는 축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충적인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축적 폰드의 장성 그 자체가 곧 축적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소득이 장성된 결과 증대된 축적 폰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순 생산물의 현물 형태가 그에 적응하여야 한다.

만일 국내에 생산적 고정 폰드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부문들이 없거나 그것이 인민 경제에서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 한다면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로동 수단은 물론 로동 대상과 각종 소비재도 계획적으로 생산하지 못 할 것이며 따라서 생산적 축적은 원만히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 구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기간적 중공업 부문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급격히 확대되는 생산적 축적을 높은 속도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 생산적 축적이 국민 소득에 비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장성할 수 있은 것도 바로 이것으로 설명된다.

국민 소득과 생산적 건설 투자 장성의 호상 관계 (%)

	1949년	1960년	1962년
국민 소득	100	328	416
생산적 건설투자	100	624	771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생산적 고정 폰드의 리용 수준을 제고하며 생산물의 폰드 용량을 저하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 속도에 또한 영향을 준다.

생산물의 폰드 용량이 적을수록 주어진 생산 폰드로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물에 대한 생산적 폰드의 용량은 로동 생산 능률과 로동의 생산적 폰드 장비성의 장성과의 호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의 생산적 폰드의 장성 속도에 비해 로동 생산 능률이 보다 급속하게 장성할수록 생산물의 생산적 폰드 용량은 저하되며 경제 발전 속도는 촉진된다.

인민 경제 특히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지도적 지위의 제고는 생산물의 생산적 폰드 용량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술적 진보가 촉진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이 보다 빨리 제고되며 전체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생산적 고정 폰드의 용량은 저하된다.

이것은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로동 생산 능률이 보다 빠른 속도로 장성하여 생산물의 생산적 폰드 용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이에 있어서 인민 경제 구조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민 경제에서 공업 그 중에서도 생산물의 폰드 용량이 적은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의 제고는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가일층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과거 일제에 의하여 강요되였던 생산 구조에서의 일면성의 청산,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면적인 경제 구조의 창설은 생산적 고정 폰드의 리용을 개선하고 생산물의 폰드 용량을 저하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 속도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사회의 로력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할 가능성을 지어 준다.

그것은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이 소비재의 재생산을 전제로 하며 소비재의 재생산은 이 부문의 구조, 발전 수준 및 속도에 의존한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하에 다면적인 소비재 생산 구조의 창설 및 발전은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 된다.

로동력 확대 재생산의 일반적 전제는 인구의 장성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는 3년 간의 전쟁이 있었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는바 그것은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의 충분한 보장,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의 부단한 장성은 로력 원천을 계통적으로 조성하고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로력에 대한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 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로동 인구의 전면적인 취업의 조건으로 되며 전 사회적 규모에서 로동력의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리용을 가능케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구 1,000 명 당 물질적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로력자의 비중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전체 로동자의 68%가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또한 그의 거의 50%가 기술적 진보와 직접 관련된 공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 구조는 나라의 자연 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장성 속도를 촉진시키며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높여 준다.

오늘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국내의 모든 자연 부원을 더욱더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연 부원의 종합적인 리용을

위한 이러한 가능성도 발전된 다면적인 생산 구조를 가져야만 비로소 현실적인 것으로 전화될 수 있다.

오직 자립적 구조를 갖춘 경제를 가질 때만이 나라의 자연 부원을 전면적으로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없는 자원과 부족한 자원을 공업적 방법으로 만들어 내여 국내에 공고한 원료, 연료 및 동력 기지를 축성할 수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 구조는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주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 조건으로 된다.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는 사회적 생산의 각이한 부문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 생산의 비상히 빠른 속도는 인민 경제 각 부문들 간의 량적인 상호 관계를 급격히 변동시키며 부단히 새 현실에 적응하게 부문 간의 균형을 조절할 것을 요구한다.

자립 경제는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서로 밀접히 련관된 생산 부문들의 전일체가 형성됨이 없이는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만일 국내에 생산 부문들의 기본적인 환절이 없거나 그것이 미약하게 발전한다면 인민 경제 전반의 정상적인 균형 관계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견지하자면 반드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 공업과 농업 간,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의 주동적인 조절은 합리적인 인민 경제의 구조 하에서만, 그 가일층의 완성화 과정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 행정에서 일시적으로 개별적 부문들에 조성될 수 있는 긴장성도 제때에 주동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철과 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였던 사회주의 건설의 지난 시기 그 생산을 단시일 내에 확장할 수 있는 자체의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 하였다면 어떻게 되였을 것인가.

우리는 그 때 자체의 금속 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하여 용광로를 빠른 속도로 건설하고 철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천리마적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었다.

제반 사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가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발전과 기술적 진보에 완전히 부합되며 인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사회주의 하에서 날로 급속히 발전하는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데 대한 객관적 요구에 적응한다.

그것은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키며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 사회적 생산의 효과를 제고케 함으로써 경제

의 높은 발전 속도를 부단히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과 소비는 서로 밀접히 련계되여 있다. 생산 구조, 발전 속도 및 수준은 소비를 규정하며 소비는 생산에 반작용한다.

소요 시기 사회적 생산에 대한 수요의 용적과 구조는 중요하게 그 시기 생산의 발전 수준과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높은 생산력에 기초한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생산물에 대한 사회의 장성하는 수요를 다방면적으로 충족시킬 가능성을 지어 준다.

사회주의 하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매개 나라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에 의하여 창설되면서 그것은 사회의 새로운 수요를 낳는다.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생산물에 대한 수요 구조와 용적은 결코 고정 불변할 수 없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생산 구조가 완성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수요가 산생되며 사회는 생산물에 대한 더욱더 다양하여지는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 수단에 대한 국내의 방대한 수요 용적에 적응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축성, 높은 생산력의 창조, 부단한 기술적 진보에 기초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로부터 이 제도 하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 용적은 필연적으로 부단히 장성하게 된다.

우선 사회주의 국가는 자체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와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량의 기계와 설비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는 벌써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 자체가 방대한 생산 수단의 수요자로 되며 또한 경공업, 농촌 경리, 기본 건설, 교통 운수, 수산 부문 등 인민 경제의 기타 모든 부문들이 현대적 기술 수단의 거대한 수요자로 등장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는 부단한 기술적 진보와 생산적 고정 폰드의 계획적인 갱신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제기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고정 폰드의 생산적 소모는 생산 수단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매개 나라의 수요가 어떤 개별적인 시기에만 국한되여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더우기 새 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사회적 및 인공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 우리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생산에의 부단한 도입은 항상 특별한 관심사로 제기되는 것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는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에 의하여서도 부단히 장성하게 된다.

그것은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가 생산 수단들을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는 조건 하에서도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특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절대적 증가를 전제로 하는 확대 재생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는 이 밖에도 대외 시장에 의하여 계속 증대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인민 소비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장성하며 여기에서 또한 생산 구조가 커다란 역할을 논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국민 소득의 장성을 촉진하고 각종 소비재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부단한 기술적 진보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케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며 그들의 로동을 개선하고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시킨다.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공업의 강력한 지원 하에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이리 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민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자극한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의 구조가 생산물에 대한 사회의 장성하는 수요에 적응하며 매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에 적합한 충분한 수요 용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부문 구조와 수익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부문 또는 기업소의 수익성을 타산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견지에서도 타산하여야 하며 목전의 수익성과 함께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견지에서도 보아야 한다.

경제의 장성 속도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축적의 규모에 의존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축적의 규모는 전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의 수익성 즉 총 생산물 가치 중에서 사회를 위한 생산물 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함께 축적도 급속히 장성하게 되는 것은 개별적 기업소 또는 생산 부문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의 수익성이 부단히 장성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하에서는 개별적 기업소나 생산 부문에서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의 수익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수익성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그것과 결코 동일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 자본가들의 운명과 관련되여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로 자본이 자연 발생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미약한 자본가들은 파산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없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이 제도 하에서는 생산이 전 사회의 리익과 전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나라들 특히 이러저러한 력사적 조건으로 하여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기형적인 생산 구조를 넘겨 받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게 일련의 새로운 생산 부문들을 창설 발전시키게 되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첫 시기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또 개별적 부문이나 기업소의 범위에서는 수익성이 높지 못하거나 지어 일시적인 손실까지 볼 수 있지만 하루 빨리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초기 수익성이 높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손실이 난다고 하여 전 사회적 견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장차 나라의 기술적 개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문들의 건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만일 수익성에 대하여 근시안적으로 대하면서 개별적 기업소의 수익성을 전반적인 인민 경제의 수익성 우에 올려 세우며 목전의 수익성을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리익 우에 올려 세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가지 못 할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수익성은 개별적인 부문, 기업소의 그것과 함께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 생산적 지출에 대한 순 소득의 크기로 평가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리익의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수익성도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질적 지출을 절약하며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데 따라 부단히 제고된다.

우리 나라에서 청소한 공업 부문의 하나로 되는 뜨락또르 및 자동차 공업의 창설과 그 발전 과정이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농촌 기술 혁명과 자동차 운수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로부터 건설된 우리 나라 뜨락또르 및 자동차 공업 부문에서의 수익성은 이 부문의 그것만 떼여 놓고 볼 때 그 창설 첫 시기에는 그리 높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업 부문들 특히 뜨락또르 공업의 창설은 그 첫 시기부터 농업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앙양, 농촌 기술 혁명의 촉진과 로농 동맹의 강화 등과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적극 복무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극히 유익하였으며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았다.

뜨락또르, 자동차 공업 부문들에서 생산 경험이 축적되고 보다 완성된 기술 공학적 성과들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여

로동 생산 능률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는 오늘 이 부문들에서의 수익성이 전에 비할 바 없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 뜨락또르 및 자동차 공업에서의 대 당 생산 시간 변동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가 저하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59년	1960년	1961년	1962년	1963년
뜨락또르 대 당 생산 시간	100	81	33.85	27.8	27.5
자동차 〃	100	89.9	34.5	34.3	—
뜨락또르 대 당 원가	100	45	31.8	35.6	34
자동차 〃	100	50	48.9	42.4	—

앞으로 이 부문들에서 기술적 진보가 보다 촉진되고 로동 생산 능률이 더욱 제고되며 기업 관리 운영이 가일층 개선됨에 따라 원가는 한층 더 저하될 것이며 수익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의 구조 창설과 수익성이 조금도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인민 경제에서 기술적 진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동원 리용하며 매개 생산 부문과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여 나가는가 하는 데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3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에 따라 인민 경제의 구조를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해방 후 특히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인민 경제에서 공업의 확고한 지도적 지위의 보장— 이것은 전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와 완성화 과정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총화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과거 사회에서 넘겨 받았던 락후성과 일면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으로 장성 발전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였다. 공업 총생산액은 1963년에 1946년에 비하여 32 배로 장성하였다. 실로 우리 나라 공업은 1954년부터 1963년에 이르는 기간에 매년 평균 34.8%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공업과 농업 간의 상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 중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1946년	1949년	1953년	1956년	1960년
공업	28	47	42	60	71
농업	72	53	58	40	29

우리 나라에서 공업은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상호 련관된 현

대적 공업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그 내부 구조를 부단히 개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중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그 내부 구조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생산 수단 생산은 1963년에 1946년에 비하여 33 배로, 1953년에 비하여 21 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생산 수단 생산에서 생산의 《골근 체계》를 담당하는 기계 제작 공업은 1963년에 1946년에 비하여 162 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 총생산액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5.1%로부터 24%로 제고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의 모체인 공작 기계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광산 기계, 농기계, 전기 기계, 화학 설비, 금속 설비들과 경공업 기계 및 선박 공업 등 생산 부문들이 발전함으로써 기계 설비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게 되였으며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와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국내 자급률은 이미 93.8%에 달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과 함께 금속 공업, 화학 공업, 연료 동력 공업이 또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그 내부 구조에서 큰 변화가 일어 났다.

중공업과 함께 공업적 소비재 생산 그 중에서도 특히 방직 공업, 식료품 공업, 일용품 공업 부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그 원료 기지가 튼튼하게 꾸려졌다. 1963년에 1946년에 비하여 방직 공업은 107 배,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16 배, 일용품 공업은 일약 248 배로 장성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소비품 생산 분야에서 일제가 남겨 놓은 혹심한 락후성을 이미 오래 전에 청산하고 소비품에 대한 국내의 장성하는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그 내부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전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제에 의하여 강요되였던 농업 생산 구조에서의 편파성을 완전히 청산한 우리 나라 농업은 오늘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축산물, 공예 작물, 소채, 과실 등을 원만히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집약적이며 다각적인 경리로 전화되였으며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초 우에서 그리고 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년년이 대풍작을 이룩하고 있다. 과거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없었던 공화국 북반부는 오늘 식량이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농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는 더욱더 합리적으로 전변되고 있으며 그것들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

전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와 그 완성화 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다는 데 있다.

보통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생산 수단의 공업적 생산이 소비재의 공업적 생산보다 우세를 차지하고 농업 국가로부터 공업 국가 혹은 공업-농업 국가로 전화되기 위하여서는 매우 오랜 기간이 요구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3년 간의 전쟁이 우리 경제에 준 후과가 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공업 생산에서 소비재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 변화의 이러한 높은 속도는 공업적 소비재의 생산과 농업 생산의 구조 변화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의 가일층의 완성화에서 7개년 계획 기간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 제4차 대회는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와 기술 혁명을 7개년 계획의 중심적인 과업으로 규정하였는바 그것은 인민 경제 구조를 보다 완성하는 과정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7개년 계획 기간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의 완성화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업 생산 구조를 더욱 보충하고 완비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금후 우리 나라 공업 생산 구조 완성화의 중요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과업은 공업 생산의 구조를 한층 더 완비하고 그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 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자립적 공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7개년 계획 기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은 더욱 제고될 것이며 공업 생산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의 호상 관계가 보다 개선될 것이다. 이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약 3.2배, 그 중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3.2배, 소비재 생산은 3.1배의 높은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력의 발전과 기술적 진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들이 급속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에 방직 공업, 식료품 공업, 일용품 공업 등 인민 소비품 생산 부문들이 또한 급속히 장성하게 된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적 진보를 위하여 일련의 공업 부문들이 새로 창설되며 전에 있던 기간적인 생산 부문들이 더욱 보충 완비된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기계 제작 공업 부문 내에 전자 기구 공업이 보강되며 유색 금속 공업 부문 내에 경금속 생산 부문들이 보충될 것이다.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함께 원료 기지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농업 생산이 부단히 증대되고 그 내부 구조가 일층 완성될 것이다.

실로 7개년 계획 기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다면성은 일층 더 강화되고 생산력의 발전은 비상히 촉진될 것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은 보다 굳건히 다져질 것이다.

※ ※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 확립에서 달성한 성과는 실로 크다.

우리 인민이 나라의 자립적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이와 같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그 기저에는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자력 갱생의 원칙이 놓여 있으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놓여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중의 혁명적 열성과 무궁무진한 지혜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 창설을 위해 요구되는 방대한 물질적 자원과 자금, 로력을 동원하였으며 생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천들을 부단히 탐구하고 보충하여 왔다.

전후 시기 형제 국가 인민들의 경제적 원조는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을 고무하였으며 경제 건설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형제 국가들의 경제적 원조도 우리 당이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었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 창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기본 경제 로선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우선 인민 경제의 전반적 련쇄와 재생산의 모든 환절에서 가장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부문들의 호상 관계와 발전 속도에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부단한 기술적 진보와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모든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자체 발전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중공업으로 하여금 인민 소비품 생산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과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또한 생산 순환이 길고 방대한 자금을 요구하는 부문들과 생산 순환이 짧고 비교적 적은 자금을 요구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적합한 비례로 배합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제고시켰으며,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 밑에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 경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나갈 것이며 우리 나라를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관된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 체계로 더욱 빨리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콩고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의 새로운 발전

김 호

오늘 콩고(레오폴드빌)에서는 나라의 해방과 진정한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파트리스 루뭄바 피살 3주년을 계기로 일어난 이 투쟁의 불'길은 지금 전국적 범위로 퍼져 가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비명을 올리고 있으며 더욱더 단말마적인 책동에 매여 달리고 있다.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공연한 무장 간섭의 길에 들어 서서 작전 부대들과 하산병들, 《씨-130》형 수송기, 직승 비행기 등 미국의 군사 인원들과 군수 물자들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용군들을 대량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인민 무장대를 반대하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제가 이것으로써 콩고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일떠선 인민들은 불패이기 때문이다. 콩고 인민들은 미제를 비롯한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발악이 심해지면 질수록 더욱더 손에 무장을 튼튼히 틀어 쥐고 싸우고 있으며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

레닌은 1916년의 아일랜드 봉기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실패한 혁명 운동의 경험에서 대중은 교훈을 얻으며 배우며 력량을 집결하며 자기들의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 내며 그리 하여 총공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콩고에서도 미제 침략자들의 간섭에 의하여 파트리스 루뭄바의 애국적 투쟁이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지만 그것으로써 민족 해방 투쟁이 끝날 수는 없었다. 력사는 자기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물론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지난 기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민족적 독립을 위한 콩고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완전히 교살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책동들을 다 감행하였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있어서 식민주의 아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여지 없이 드러내 놓았다. 사실 상 루뭄바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한 것도 미제였으며 콩고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준 것도 바로 미제였다.

그들은 이미 1906년부터 지하 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의 원료 창고》로, 《중앙 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불리며 지리적으로도 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콩

고에 대하여 침략의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 섰다. 최근에 와서 그 야망은 더욱 증대되였다. 미국의 악명 높은 전쟁 상인이며 이전 대통령이였던 아이젠하워는 만일 미국이 콩고, 중동, 수에즈 운하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강철과 원자탄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고 떠벌렸으며 미국 참의원 외교 위원회가 1959년에 제출한 보고에서는 《콩고의 지하 자원은 미국의 공업과 군사적 수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와 콩고와의 미래의 관계는 이러한 광산물의 계속적인 공급으로써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음흉한 기도를 잘 말하여 주는 것이다.

더우기 콩고 인민들이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80여 년 간에 걸친 벨기 식민지 통치에서 1960년 6월 30일 독립을 쟁취한 이후 이 나라를 예속화하기 위한 미제의 야망은 극도로 로골화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만 침략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와 구실을 찾는 것만이 문제로 되여 있었다. 미제는 바로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무장 간섭에 의한 소요를 절호의 기회로 리용하여 콩고에서 이른바 벨기군을 철수시키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구실 밑에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여 이 나라에 기여 들었다. 그들은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첫 순간부터 콩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부원을 략탈하기 위한 야수적 본색을 남김 없이 나타냈다.

구식민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민족적 영웅 파트리스 루뭄바를 수상으로 하는 콩고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는 흉계를 꾸민 것은 바로 그 시작이였다.

미제는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완강히 투쟁하는 정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쉽게 확립할 수 없는 만큼 신식민주의의 전통적인 수법에 따라 우선 저들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는 것으로부터 착수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벨기군을 철수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감금된 벨기 침략자들을 석방하여(《유엔군》의 견장까지 달아 주었다) 리용하였다. 당시 콩고 주재 유엔 대표였던 미국인 번치의 지휘하에 《유엔군》은 애국적인 콩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고 콩고군을 무장 해제하고 비행장, 항구 등 중요 군사 시설들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유엔군》의 이러한 군사 점령 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쏨베, 칼론지 등 괴뢰들을 매수하여 콩고인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콩고의 통일을 가로막는 한편 1960년 9월에는 카사부부를 사촉하여 루뭄바를 수상직에서 해임시켰으며 모부투와 같은 반역자로 하여금 무장 반란을 일으켜 루뭄바를 비롯한 합법적 정부의 애국적 인사들을 체포 구금케 하였다.

그 후 미제의 책동은 더욱 악랄하였다.

합법적 정부를 전복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둘라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콩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을 완전히 말살해 보려고 1961년 초에는 쏨베, 아둘라 도당을 사촉하여 루뭄바를 살해하였으며 저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그의 시체를 류산 속에 용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콩고 국회를 장악하고 루뭄바

의 위업을 계승한 기젱가마저 구금하였다.

이것은 콩고 인민들 속에서 미제에 대한 불만을 극도로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 내에서도 기젱가를 석방할 데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였으며 미제와 괴뢰 도당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확대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1963년 9월에 국회마저 해산시켰으며 10월에는 수도 레오폴드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투옥하였다. 미제는 지난 4년 간에 9만 5,000 명 이상의 《유엔군》을 주둔시키고 4억 3천만 딸라의 거액을 탕진하면서 콩고를 하나의 군사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이로써 미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그것이 더는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로 날려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인민들의 분노를 증대시키고 그들을 더욱 각성시켰고 단결시켰을 뿐이며 그들로 하여금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정확한 투쟁의 길을 찾게 하였을 뿐이다.

콩고 인민은 요람 속에 뛰여 들어 민족적 독립을 말살하고 략탈과 학살로 그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자가 누구이며 그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력량을 더욱 튼튼히 집결하게 되였다.

이것은 콩고에서 오늘과 같이 해방 투쟁을 가일층 앙양시킬 수 있게 한 요인으로 되였다.

금년에 들어 와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민족 해방 투쟁은 오늘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다.

우선 이 투쟁은 명백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조직의 지도 하에서 대중 속에 확고한 뿌리를 박고 있으며 운동의 가장 높은 형태인 무장 투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콩고에서는 기젱가 정부가 해체된 이후 루뭄바가 지도하였던 민족 운동당을 비롯한 반제적인 정당 사회 단체들의 통일 전선에 기초하여 《민족 해방 리사회》가 조직되였다. 민족 해방 투쟁은 광범한 각계 각층 군중을 망라한 이 조직의 지도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민족 해방 리사회》는 오늘 애국적인 무장 대오를 조직하고 인민들을 자기 해방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무장 투쟁에로 과감하게 조직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콩고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이 조성된 정세 하에서 가장 정확한 투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사실 오늘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국제 헌병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폭압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무장 투쟁 이외의 다른 어떤 방도로써도 콩고에서 진정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콩고 인민의 투쟁은 또한 그것이 직접 세계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이 나라 인민들의 불행의 화근인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민족 해방 리사회》는 자기 행동 강령에서 《미 제국주의의 예속적 철쇄를 끊어 버리고 전국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미국 억압 제도의 콩고 대변자들을 몰아 내고 미 제국주의의 쇠사슬에서 벗어 나라.》고 지적하였다.

애국적인 콩고의 무장 부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그 발생 첫날부터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를 반대하여 완강히 싸우고 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콩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비하여 거대한 진보로 된다.

콩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원쑤들의 온갖 야만적 탄압과 회유, 기만 책동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무장 부대는 투쟁 과정에서 더욱 세련되고 조직화되여 강유력하여지고 있다.

초기 활과 창 그리고 약간의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불과 수백 명으로 시작된 이 투쟁은 7~8 개월이 지난 오늘 전국의 3 분의 1 지역에서 완강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수십 개의 도시와 촌락을 해방시켰다.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은 처음부터 간고하였으나 무장 투쟁을 시작하자 그 대렬은 수천, 수만으로 확대되였으며 애국적인 무장 부대들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콩고에서는 중요 교통로들이 인민 무장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여 전국의 교통망이 마비 상태에 처하여 있다고 한다. 인민 무장 부대들은 해방된 도시와 촌락들에서 새로운 혁명 기관을 설치하고 투쟁에서 얻은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있다.

콩고의 무장 대오는 이 투쟁 과정에서 실로 강유력한 력량으로 자라 나고 있다. 콩고 주재 미국 대사까지도 《게릴라들은 아주 잘 조직되여 있으며 지휘 능력도 아주 높다. 그들의 전략 전술은 알제리아와 꾸바 폭동의 첫 단계와 비슷하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영국의 《스코츠맨》지(8월 21일 부)도 《현재 그들은 계속 승리를 거둘 유망한 처지에 있다.》고 썼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콩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 책동에도 불구하고 민족 해방 혁명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떠선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막을 힘은 없으며 더러운 식민주의의 력사는 다시 되풀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콩고에서 민족 해방 혁명이 앙양됨에 따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 체계는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괴뢰 정권은 완전히 무기력한 것으로 되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철저히 고립되였으며 군대의 사기는 저락되여 전투력은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아둘라 정권을 급기야 사임시킨 미제는 해외에서 쫌베를 불러 들여 괴뢰 정권의 《수상》직에 앉혀 놓고 회유 정책에 매여 달린 것도 전'적으로 미제의 통치 체계의 위기의 반영이였다.

미제는 인민들 속에서 완전히 버림 받았으며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 된 아둘라 정권으로써 더우기 폭압 정치로써는 자기들의 지배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타산하였다. 그들은 이로부터 《유엔군》을 철수시키고 파쑈적인

아둘라 정권 대신에 쏨베 정권을 조작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주구이며 콩고 인민의 반역자인 쏨베는 정권에 들어 앉기도 바쁘게 상전의 지시 대로 그 어떤 《민족 화해》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는 전국 각지를 싸다니면서 《화해》니, 《자주적 정책》이니, 《콩고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느니 하고 웨쳤으며 구금되였던 기젱가를 석방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가 과거의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듯이 묘사하며 인민들에게서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젱가의 석방, 이것은 국내 국제적으로 되는 인민들의 강한 압력에 의한 것이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부르죠아 출판물들도 쏨베를 도우려고 그가 마치도 콩고에 《모든 세력들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적 화해》를 달성하며 콩고의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듯이 선전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어제'날의 식민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로서 배격 당한 쏨베의 속심을 숨기기에는 인민들이 그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제가 쏨베와 칼론지와 같은 구식민주의자들의 졸개를 불러다 놓고 이른바 《민족 화해》를 떠들게 하고 있는 것은 료원의 불'길처럼 확대되고 있는 콩고 인민의 애국적인 무장 투쟁을 무마시키며 대중들을 기만함으로써 허물어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콩고 인민들은 결코 위기에 직면하여 회유책에 매달리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속지 않고 있다.

무장 투쟁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지방들에서도 쏨베 도당을 배격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아 가고 있으며 정부를 반대하는 행동들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8월에만 하여도 외전들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콩고의 딴 지방들에서와 같은 분규에 휩싸이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콩고 주 중의 하나였》던 《우방기주에서는 불만을 품은》 인민들이 《주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민 무장대를 지지하는 대중적 시위와 폭동은 오늘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 나고 있으며 지어 괴뢰 군대 내에서까지 이러한 투쟁은 호응을 받고 있다.

무장 투쟁의 확대 발전과 미제와 괴뢰 도당의 심각한 위기로 하여 쏨베 집단에 속한 괴뢰군은 극도로 사기가 저락되고 있으며 그들은 미제와 괴뢰들을 위하여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중대, 소대 등 집단적으로 인민 무장 부대에 투항해 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괴뢰군 병사들 속에서 전선 리탈자들과 도주자들이 또한 계속 증대되고 있다.

스탠리빌에서 지난 1월 괴뢰 헌병들이 인민들의 애국적 무장 부대에 합세하였고 5월 말 인민 무장 부대의 알버트빌 공격 시에는 《정부군》 2 개 중대가 폭동을 일으켜 이에 호응해 나섰다.

콩고의 이러한 사태를 묘사하여 영국의 《스코츠맨》지가 《쏨베는 자기의 정치적 잔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싸우는 수 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힘이 없다.》고 쓴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쏨베 괴뢰 도당은 비단 콩고 인민들 속에서만 배격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나라들과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7월 17일에 진행된 제 2 차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아프리카 통일 기구 각료 리사회와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수반들은 이 회의에 기여 들려고 한 쏨베에게 문을 닫아 버렸다.

아프리카의 많은 신문들과 출판물들은 쏨베 도당의 이른바 《민족 화해》의 처사에 대하여 만화로써 조소와 비난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콩고(브라자빌) 방송은 쏨베를 《정권에 들어 앉은 살인자》라고 규탄하였으며 같은 날 탄가니카의 주간지 《우후루》는 콩고 사태를 론평하는 론설에서 《쏨베는 바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노예이며 앞잡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사태는 결국 콩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들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가 끝장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진퇴량난의 처지에 놓여 있는 위기의 운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 나기 위하여 최근에는 콩고 인민들의 애국적인 무장 투쟁을 직접 탄압하는 단말마적인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수십 대의 땅크와 다수의 군사 인원을 실은 수송기들을 비롯하여 《비-26》 폭격기 등을 콩고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7일에는 레오폴드빌에서 미 국무 차관보 윌리암스와 쏨베 도당 간에 비밀 《회담》을 벌려 놓고 인민의 무장 투쟁을 말살할 데 대하여 공모하였으며 8월 말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용군들을 끌어 들였다. 콩고에 투입된 미 군사 인원들은 지금 콩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을 탄압하는 데 서슴없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콩고의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이 거세차게 앙양되고 있고 이들을 지지하며 미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세계 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이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제는 결코 그러한 책동으로써 저들의 통치 체계를 부지할 수 없다.

미제는 콩고에서도 남부 월남에서와 같은 참패의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이다.

※ ※

콩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의 력사는 이 나라 인민들과 아프리카 인민들은 물론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우선 유엔이란 미제의 침략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유엔이 미제의 침략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공 시 명백히 드러났다. 유엔은 그 기'발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 전쟁에 도용 당함으로써 자기의 력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적 오점을 남기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유엔을 통하여 민족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듯이 떠들면서 유엔에 모든 것을 의탁하여야 하며 공연히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콩고 인민들에게 강요하였다.

그들이 그렇게도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옹호하도록 콩고 공화국을 방조하고 있다.》고 열렬히 찬양한 유엔이 과연 콩고에서 어떠한 역할을 놀았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였던 것과는 달리 콩고는 유엔의 간판을 들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미제 살인귀에 의하여 민족적 독립을 말살 당하였고 루뭄바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잃었으며 참을 수 없는 불행을 겪었다.

사람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콩고 인민들을 침략한 미제를 어떻게 도와주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콩고 교훈의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이 무장의 힘에 의거하여 식민지 인민들을 탄압하고 애국적 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는 조건에서 진정한 독립과 자유,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평화적 협조가 아니라 오직 손에 무장을 잡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콩고 인민의 애국적 무장 부대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에 의거하면서 손에 무기를 들고 미제와 그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움으로써 그들을 위기에 몰아 넣고 있으며 날마다 새로운 성과를 거두며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실은 이러한 투쟁, 오직 그것만이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 있는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독립과 자유, 민족적 권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며 휘황한 미래에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태를 정확히 보려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만일 콩고 인민들이 일부 사람들이 념불처럼 외우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친선, 타협의 로선에 의거하였다면 그 어떠한 성과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1960년 루뭄바와 그의 전우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황급히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세계의 전면적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콩고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끄라고 강요하였으며 오늘도 미 제국주의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날로 확대되고 있는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전률케 하고 있으며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세계적인 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떠드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영웅적 콩고 인민과 그의 무장 부대는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에서 더욱 큰 힘을 얻으면서 힘 있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 기간 콩고에 대한 미제와 《유엔군》의 횡포한 간섭 책동을 시종일관 규탄하여 왔으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콩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온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콩고 인민들의 숭고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며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들과 굳게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콩고에 대한 침략 책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그의 고용병들과 살인 무기를 걷어 가지고 콩고에서 당장 물러 가야 한다.

남조선 인민의 투쟁과 념원을 반영한 문학

리 원 꼰

문학은 다른 모든 사회적 의식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현실과 사회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 때 인민 대중의 념원과 지향을 대변할 수 있으며 인민의 귀중한 정신적 재부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계급 사회에서 지배 계급에게 복무하는 문학은 결코 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옳은 인식 교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것은 지배 계급이 문학 예술을 저들의 착취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기 때문이다.

미제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 문학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

미제는 해방 후 19 년 간 남조선에서 력대의 괴뢰 통치배들과 더불어 일체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 예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문화 전통을 말살하면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의 사상적 수단으로서 퇴폐적인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 예술 조류들을 끌어 들이고 더욱 조장시켰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과 계급 의식의 장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광범히 전파시킨 것은 사람들에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며 찰나적인 향락과 부화 방탕을 고취하는 색정주의와 저들의 식민지 통치와 괴뢰 도당의 부정 부패로 인한 남조선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고 그 제도를 미화하는 어용 문학,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굴종할 것을 설교하는 허무주의 문학 그리고 인간 증오 사상과 동족상잔을 고취하는 《반공 문학》 등이다.

특히 전후 시기에 미제는 남조선에서 더욱 가중해 가는 사회의 파국 상을 옳바로 보지 못 하게 하고 오히려 《불안》과 《상실》, 《인생의 부조리》를 떠벌리며 고독과 비애에 싸여 불안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설교하는 실존주의 문학을 광범히 파급시켰다.

이리 하여 오늘 남조선 문학에서는 현실을 외곡하며 인민을 기만하는 각종 반동적인 부르죠아 문학 예술 조류가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남조선 문학에서 그 반동적 조류는 미제의 비호 하에서 더욱 악랄하게 세기말적인 퇴폐 상을 빚어 내고 있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에도 어차피 현실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는 문학이 있게 된다.

객관적 현실의 반영 형태로서의 문학은 계급 사회에 있어서 지배 계급의 사상을 대변하는 반동적인 것 뿐만 아니라 착취 제도를 반대하는 선진 계급의 사상, 인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조류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의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며 계급 투쟁의 장성과 함께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 예술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남조선 문학에 있어서도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현상인 이 진리가 례외일 수는 없다.

해방 후 악랄하게 감행된 미제의 식민지 정책과 력대 괴뢰 도당의 매국 배족적 부패 정치는 남조선 경제의 헤여 날 수 없는 파괴와 력사 이래 미

중유의 민생고를 빚어 냈으며 식민지 제도 하에서의 사회적 모순을 더욱 첨예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드디여 1960년 4월 남조선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일떠섰으며 리 승만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반미 구국 투쟁에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의 첨예한 환경과 특히 4월 인민 봉기의 불도가니 속에서 민족적 량심을 지닌 일부 남조선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민중의 편에 서서 그 현실을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 문학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비호 밑에서 지배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과는 다른 인민의 투쟁과 지향을 반영하는 진보적 경향의 문학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였다.

1960년 4월 인민 봉기는 남조선 작가들의 사상 의식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량심적이며 진보적인 작가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미제와 괴뢰 도당의 탄압 하에서도 어지러운 현실과 타협함이 없이 지조를 지켜 오면 량심적인 작가들은 4월이 가져 온 《자유》를 구가하면서 민중과 함께 곧바로 투쟁의 광장으로 내달리였다.

또한 남조선의 모순된 사회 하에서 자기의 출로를 찾지 못 하고 고독한 관념의 울타리 속에서 모색하며 모대기던 작가들이 《자아 의식》의 관념에서 깨여 나 들끓는 현실을 옳바르게 보기 시작하였으며 봉기한 인민들의 힘을 감득하였다.

그들은 인민 항쟁의 격류 속에서 남조선 사회의 파국적인 모순을 뚜렷이 간파하게 되자 곧 자기들의 작품에 남조선 사회의 모순된 현실과 참담한 인민 생활을 반영하면서 민중의 편에 합류하였다. 량심적인 작가들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인민에게 의거했을 때 그들의 작품에는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고독과 절망과 비애의 암무 속을 헤매는 무기력한 군상 대신에 성실한 인간 특히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는 악의 제도에 항거하여 싸우는 인민의 형상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 하여 이 시기에 민족적 량심을 지닌 남조선 작가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대담하게 남조선 현실의 밑바닥을 파 헤치면서 거기에 뿌리 박힌 사회악을 적발 폭로하며 4월 인민 봉기의 정당성과 그의 승리를 구가하여 나섰다.

남조선 통치배들과 그들이 빚어 낸 모든 사회악을 신랄하게 타매하면서 한 시인은 4월 인민 봉기가 인민의 진정한 나라(정권)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렬하게 노래하였다.

…

《민족》과 《조국》의 이름으로 기만
  을 일삼는
정상배와 아첨의 무리들은
송두리 채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인민에겐 《준법》을 강요하며
《불법》을 자행(恣行)하는 위정자는
  없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귀하신 몸》은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

우리들의 나라! 사랑하는 내 나라는
인민으로 이루어진
인민을 위한
인민의 진정한 나라라야 한다.

(시집 《4월의 광장》에 수록된 시 《해마다 4월이 오면》에서)

단편 소설 《대렬 속에서》(《사상계》, 1961. 100 호)에서는 주인공들인 운전수의 아들과 장관의 아들이 그들의 각이한 계급적 처지로부터 출발하여 전자는 처음부터 견결히 조직적으로, 후자는 노호하는 민중의 영향 하에서 괴뢰 정부 장관으로 기만과 협잡과 부정 치부를 일삼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괴뢰 통치배들의 부패성을 깨닫기까지의 우여 곡절을 통하여 항쟁의 대렬 속에 뛰여 드는 모습이 진실하게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부패 정치 타도하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웨치며 경무대에로 돌진하는 학생 청년들의 용감한 투쟁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그는 이 대렬 속에서 《힘이 넘쳐 흐르는 봄》과 《강렬한 생명》을 보았으며 지금까지 《목마르게 바라면서 얻지 못 했던 답(答)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인민 항쟁은 소기의 결과를 가져 오지 못 하였다.

리 승만 독재 정권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 그처럼 수 많은 청년 학생들이 피 흘리며 싸웠는데도 4월 항쟁의 열매가 미제의 조종 하에 새로운 괴뢰의 출현으로 결실을 보지 못 하게 되자 한 시인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기'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 붉은 선혈로 나붓기는,
  우리들의 기'발을 내릴 수가 없다.

고 절통하게 울부짖으며 철저한 《민주 정체》, 《사상의 자유》, 《경제 균등》, 《인권 평등》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항쟁에 일떠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을 노래한 작품들은 이외에도 수다하다.

이 모든 작품들은 인민 항쟁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서 그 작가들의 사상적 성숙 정도와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일련의 제약성들이 있으며 간혹 희생 앞에서 비애를 느끼며 전투성이 결여된 것들도 있기는 하나 항쟁을 정당한 력사적 사변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점에서는 한결같다.

인민 항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를 지지한 남조선 작가들은 점차 항쟁의 공격 대상인 괴뢰 통치배들의 죄상을 폭로 규탄하는 데로 나아갔다.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괴뢰 경찰의 대중 학살을 폭로한 소설 《후일담》을 비롯하여 4. 19 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구타하는 괴뢰 경찰의 야수적인 잔인성을 폭로하고 있는 단편 소설 《표정》과 특히 시《경고, 통곡, 결의》(《동아 일보》, 1960년 8월 15일)에서는 남조선 통치배들에 대하여 《4. 19의 피를 팔아 사리 사욕에 탐욕하며… 이리떼처럼 충혈된 페스트균과 같은 고등 위선배》라고 신랄히 규탄하고 있다.

남조선 작가들은 이렇듯 괴뢰 도당의 횡포와 만행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죄상이 드러난 구체적 현실 즉 남조선 사회의 부패 상을 각 방면에서 폭로하고 있다.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 작가들의 인민 생활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졌다. 량심적인 작가들은 남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상층 모리배들의 그 호화롭고 부패한 생활의 밑바닥에 깔린 인민 생활의 비참한 빈궁 상을 보고 그대로만 있을 수 없었다.

이리 하여 남조선 문학에서는 가난과 실업, 굶주림과 죽음의 도탄에서 신음하는 인민 생활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작품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인민 생활의 빈궁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에서는 남조선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로동자, 하급 공무원, 실업자, 빈농민, 걸식자 등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하면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가 빚어 낸 남조선 사회의 파국 상을 조소하며 저주하고 있다.

단편 소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의 질주》(《사상계》, 1961. 9 호)는 한 중학교 교원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하면서 남조선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였다.

이 소설의 작가는 20여 년이나 교원 생활을 한 주인공 송 선생에게 남조선 사회가 준 것은 《시렁 밑까지 아이를 밀어 넣어 잠 재울 수 밖에 없는 좁다란 단간'방》과 《이불 한 쪼각 없어 안해가 젖먹이 딸애를 몸뻬 속에 품고》 자야 하는 참담한 생활 뿐이라고 현실을 사실 대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송 선생이 부화 방탕한 불량아인 N(엔) 장관의 아들이 거듭 녀학생을 유린한 데 대하여 제재하다가 오히려 그에게서 매까지 맞았으나 교원을 구타한 그 불량아는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이 처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학원의 부패와 사회악을 조장시키는 괴뢰 통치배들을 타매하였다.

특히 작가는 《교과서 속에 있는 것》 밖에 모르던 《순수》한 송 선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에 의혹을 품게 되던 어느 날 빠고다 공원에서 의외에도 륙순이 넘은 자기 아버지와 몇 끼를 굶고 집을 나가 버린 처숙모가 장타령을 부르며 사람들에게 구걸까지 하게 된 참상을 목격케 하면서 부패와 굶주림으로 가득 찬 남조선 사회에 대하여 《세상이 외로 돌아 간다.》고 조소하고 《눈알이 뒹겨지게 끌지린 세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 사회를 이렇게 더럽혀 놓은 《빤질대는 놈들을 북북 갈아 눕히》며 이런 《똥개만도 못한 놈들을 보기 좋게 깔아 눕히자》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단편 소설 《판자'집 그늘》(《현대 문학》, 1961. 8 호)에서는 미제의 대포'밥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에 끌려 갔다가 부상 당하여 절름발이가 된 《상이 군인》의 비참한 생활 상을 통하여 괴뢰 통치배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다.

비바람치는 서울 거리를 불구의 다리로 헌 니야까를 끌고 다니며 사탕 장사를 하고 있는 소설의 주인공 형식이는 자기의 옛 전우에게 말하기를 《살아야 해, 살아야 한단말야. 상이 용사, 그 대가가 천대와 굶주림이란거지 뭐냐 말야. 개자식들! 우리도 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는거야… 남들은 거들대고 사는 데 이건 무엇이야. 거지가 되여 아사하란 말이지, 더러운 세상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조선 사회의 부패와 그 통치자들을 저주하며 규탄하고 있다.

작가의 남조선 사회에 대한 고발의 기백은 주인공이 영양 실조로 급병이 난 어린 아들을 안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사정했어도 허줄한 옷차림의 그를 보자 병원 문턱 안에도 들여 놓지 않아 결국 아들을 죽이게 되는 과정에서와 특히 괴뢰 도당이 《도시 미화》라는 구실로 경찰을 동원하여 그들의 판자'집마저 강제로 철거시키는 마지막 대목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새끼들아, 안 된다, 안 돼, 못 뜯는단 말이다. 우리도 살아야겠다. 살 권리가 있단 말야, 이 새끼들아, 칠 거? 이것도 사는 거라고 쫓아 내는 거야. 이 돼지 같은 놈들…》 이렇게 작가는 판자'집을 강제로 뜯으려고 달려드는 경찰놈들을 막아 서서 웨치는 주인공을 통하여 인민들을 빈궁 속에 몰아 넣고 학대하는 괴뢰 통치배들에 대한 격분과 증오를 참지 못 하고 있다.

이렇듯 량심적인 작가들은 남조선 사회와 가정의 세태 생활에 대한 형상적인 분석을 통하여 민생고와 반동 통치배들의 부정 부패를 폭로하며 남조선 현실이 빚어 낸 사회악에 대한 비판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현실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해부해 들어 간 작가들은 이제는 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나 한 가정의 비극을 형상화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며 통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한 것은 개별적 인간이나 가정의 세태적인 비극을 제시하고 통탄하며 하소연하는 것만으로써는 사회악과 인민 생활의 참상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울분과 통탄, 하소연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조선 사회를 그처럼 말세기적 도탄에 몰아 넣은 원흉인 미제 침략자들의 죄상을 규명하고 폭로 규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단편 소설 《백의의 수기》(《현대 문학》, 1961. 5 호)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죄상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 내면서 침략자들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다.

작가는 이 사상 주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라는 주인공의 수기 형식을 택하고 정론성이 강한 필치로써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나》는 실직 상태에서 병으로 앓고 있는 데다 생활의 유일한 동반자이던 안해마저 잃어 버린 자기의 신세를 회고하며 수기를 쓰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 고등 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우리는 소위 자유의 녀신을 동경할 의무도 없지만 늑대를 겁낼 필요도 없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가난과 산 송장의 탈을 면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여 반 년 동안이나 구금되여 모진 고문을 겪었으며 출옥 후에는 직업을 빼앗기고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다가 안해마저 잃어 버린 것이다.

주인공 《나》는 이렇듯 자신과 가정을 속속들이 파괴한 원흉은 남조선에 기여든 《엉뚱한 존재》 즉 다름 아닌 미제 침략자들이라고 청당하게 밝히면서 조국을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켜서 제멋 대로 《료리》하며 파괴 략탈하고 있는 《당신들》—미 제국주의자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그 무자비한 행위의 죄를 반드시 받는다는 말이다.》라고 선언한 다음 놈들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론죄하고 있다.

《지난 16 년 동안 당신들은 우리를 돕는다는 달콤한 말을 던지며 수십만 명이 우루루 몰려 들어 왔다. 그리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이 살아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간다는 것조차 있을 수 없었다》.

작가는 이렇게 미제의 《원조》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놈들이 괴뢰 《꼭두각시》들을 통하여 수 많은 재물을 략탈해 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앗아 간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우리의 꼭두각시들은 당신들로부터 동족 살해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받았다.

당신들이 정성 들여 만든 총탄은 우리의 부모 형제를 무참하게도 쓰러치고 또 쓰러쳤다》고.

이렇게 미제 침략자들과 그 괴뢰 도당의 죄상을 준엄하게 폭로 규탄한 다

음 작가는 이 모든 악의 씨와 가난의 근원을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 제도를 거부해야 하며 미제 침략자들의 강점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가난을 추방하고 새로운 생활 향상을 위하여 박차고 나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겠다. 그러니까 낡은 제도로부터는 아무 것도 이어 받을 것은 없다. 낡은 것으로부터는 무지와 비참, 무질서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강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침을 삼키며 덤벼 들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이 작품은 한갖 실직 당한 한 교원의 하소연이 아니라 그것은 해방 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침략자들의 천추에 용납 못 할 죄상을 력사적으로 폭로 규탄하는 민족의 수기, 남조선 인민들의 준엄한 론고장인 것이다.

남조선 작가들 속에서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규탄의 기백은 미제 침략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한 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 리유는 없다.
> 나가 다오. 너희들 다 나가 다오.
> 너희들 미국인은 하루 바삐 나가
> 다오.
> ……
> 리유는 없다.
> 가 다오. 너희들의 고장으로…
> 너희들 미국인은 하루 바삐 가 다오.
> ……
> 서푼어치 값도 안 되는 미국인은
> 쵸콜레트, 커피, 페치코오트, 군복,
> 수류탄을 가지고
> 소리 없이 가 다오 나가 다오.
> (시 《가다오 나가 다오》《현대 문학》 1961. 1 호)

이렇듯 남조선을 처참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미제의 죄악을 간파한 남조선 작가들은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 냄이 없이는 조국의 완전 독립도 평화적 통일도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인식하였다.

그리 하여 미제를 조국 강토에서 몰아내는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민족 지상의 과업은 남조선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절실한 문학적 주제의 하나로 되였다.

하여 남조선의 한 시인은 자기의 시 《강》에서 남조선 인민의 《피를 빨아 먹던, 개 이리떼》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통일의 《푸른 장강, 우리들의 꽃강》이 터져 흐르게 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 웨쳤다.

특히 시 《다리》(《자유 문학》, 1960.3 호)에서는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한갖 추상적인 호소로 그치지 않고 통일을 《가로막는 권력의 담정을 쳐부시》고 남북 교류의 다리를 놓고 평화 통일의 위업을 성취해야만 남조선 인민들이 《포박 당한 억울한 수인》 같은 도탄 속에서 구원될 수 있다고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 다리를 놓자.
> 다리를 놓아야 한다.
> 우리가 사는 일은 다리를 놓아야
> 한다.
> 너와 나의 마음에 다리를 놓자
> 휴전선 우에
> 서울과 평양에
> 가로 세로 거미줄 감기듯
> 하늘에 별이 얽히듯
> 이렇게 다리를 놓아 나가면
> 언제인가 하나가 되리
> 우리는 하나가 되리

이상에서 렬거한 작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량심을 지니고 진정한 문학을 모색하고 있는 작가들이 그 얼마나 인민들의 념원을 뜨겁게 느끼고 있으며 인민의 지향을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하고저 암담한 현실과 맞받아 싸워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년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한결같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절실하게 제기되는 사회적, 민족적 문제들을 자기들의 중요한 문학적 과제로 삼았다.

그리 하여 남조선 문단에서 인민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 급격히 자라 난 이 진보적 경향의 문학은 남조선에서 시대의 진실을 대변하는 진정한 문학, 인민의 문학으로서 점차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에서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는 이러한 진보적인 문학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미제의 조종 하에 1961년 5월 군사 정변을 일으킨 박 정희 도당은 정권을 탈취한 이튿날에 벌써 《계엄 사령 포고 제 5 호》를 공포하여 문학 예술 작품에 대한 파쑈적 검열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4월 인민 봉기 이후 진보적 경향의 작품들을 발표한 량심적인 작가들을 《용공》이라는 《죄》명 하에 검거 투옥하고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에서 진보적 문학 예술은 또다시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는다는 구호 밑에서 일체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문학 예술을 탄압하는 한편 군사 정권의 반동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학 예술은 《사회에 적극 봉사해야 한다.》는 기만적 구호 하에 남조선에서 인민의 배척을 받는 문학 모리배들을 규합하고 온갖 퇴폐적인 반동 문학 예술을 조장시켰다.

박 정희 도당의 진보적 작가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 조치에 대항하여 남조선의 한 작가는 《근본적 문제는 시인을 징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다… 장관이나 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 나면 그만이지만 시인을 감옥에 가두어 본들 무슨 소용인가, 권력이나 빽으로 시인이 된 것도 아니고 감투나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시인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 (《자유 문학》, 1961. 8 호,)고 당당히 언명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창작의 자유를 옹호하여 나서면서 잃어 버린 《4월》의 열매를 되찾고저 하였다.

그리 하여 군사 정권 하에서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일반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4월 인민 봉기에 대한 애착이며 계속 혁명에의 지향이다.

그들은 4월 인민 봉기를 《미완의 혁명》으로 간주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돌아 와야 할 기'발》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한 시인이 《정치에 강간 당한 4월이여! 정치와 간음한 5월이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4월 《혁명》의 열매를 가로챈 군사 정권에 대한 불 같은 증오심은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의 작품에 일관하게 반영된 주되는 사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 정권에 대한 부정의 사상은 그들에 의하여 조작된 악법들이 끼친 사회적 후과들을 폭로하는 작품들로서 나타났다.

단편 소설 《월광곡》(《사상계》, 1962. 2 호)에서는 군사 통치배들이 강요한 이른바 《학제 개혁》에 의한 《정년제》로 말미암아 생계를 잃게 된 한 로교원의 비극적 운명이 그려지고 있으며 단편 소설 《만학 선생》(《현대 문학》, 1962.5 호)에서는 이른바 《대학 정비령》에 의하여 영어를 모른다는 리유로 해직 당하게 되는 오랜 한문학자의 억울한 경우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갓 돌아와 새로 부임된 학장의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군사 정권을 타매하는 사상은 이외에도 주인공의 입을 통하여 《복지 사회를 장담하던 것이 빈지(貧趾) 사회를 이루》였고 《정권이 바뀐 이후부터 궁짜를 붙인 귀신이 발효하였다.》고 야유적으로 군사 정권을 비판한 단편 《세월》(《현대 문학》, 1962.12 호) 등 수다한 작품들에 직접 혹은 상징적 수'법에 의하여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은 다만 소극적으로 군사 정권을 부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 정권에 대하여 《또 한번 폭발시켜》 쓸어 없애야 할 력사의 오물, 시대의 《공백》으로 락인하였다.

이 크낙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차라리 불타는 물'결이라도 일어라
마침내 절정에서
나붓겨야 할 기'발을 위하여
세찬 바람이여 불어라

……

나중엔 큼직한 하늘도
덜썩 내려 앉으라
가슴이 후련하게 메꾸어질
온갖 것들이여 또다시 연소하라

(시 《손》—《현대 문학》, 1961.10 호)

설명을 가할 필요도 없이 이 시에는 숨 막히는 시대의 《공백》을 빚어 낸 파쑈적 군사 정권의 전복을 열망하는 확고한 사상과 혁명적 폭풍의 도래를 부르짖는 강렬한 호소가 깃들어 있다.

이처럼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은 가혹한 파쑈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정책이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그들의 애국심은 더욱 세차게 불타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자기의 손으로 자기 사람들끼리 자기 마음 대로 꾸리는 데서만 지금의 숨 막히는 난국에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자주 자립의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가고 있다.

그리 하여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 속에서는 시 《아아, 내 조국》에서와 같이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주를 호소하는 작품들도 나오고 있으며 침략군의 철퇴와 통일, 자주 독립을 호소한 시 《미 8 군의 차》(《현대 문학》, 1963.12 호) 등 애국적인 작품들이 창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단편 소설 《부주전 상서》(父主前上書)(《사상계》, 1964.6 호)에서는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시책에 항거한 탓으로 옥에 갇히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통하여 《정부를 총으로 뒤엎으며 잘 했다고 떠들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춧석 기여 나와 가지고는 나라를 팔아 먹는 제 2의 리 완용이 되더라도 운운하며 방약 무도하게 국민의 우에 군림하는 친구가 있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라고 신랄하게 로골적으로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면서 이 모든 죄악적인 것들을 쓸어 버리자면 《벼락이 떨어져》야 하며 그 《벼락》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이렇듯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책임을 자각하고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우국 사상을 고무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미제의 조종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또다시 나라를 팔아 먹으려고 책동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벌써 남조선의 한 시인은 사랑하는 조국에 대하여 애타게 노래 불렀다.

조국은 내가 자란 육신의 고향,
조국은 나를 기른 슬픈 어머니,

백두 먼 천지 우에 별이 내리고
남해 고운 한나 아래 파도 설레는,
지금은 열에 떠어 진통하는 조국의,
지금은 안에 끓어 신음하는 자유의,

한 번 쯤은 눈을 들어 조국을 불러
보자,

한 번 쯤은 오늘 아침 스스로를
살피자,

기'발은 불멸의 것 길이 휘날릴
리념이 녹쓸으랴 겨레 사람아,
가슴은 조국의 것 길이 뜨거울
사랑이 가라앉으랴 한 피 사람아,

(1962년 1월 1일, 《동아 일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량심적인 작가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연히 인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문학의 길에 충실하고저 싸우고 있다.

특히 진보적 사상 경향을 가진 작가들은, 남조선 사회를 더욱더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의 도탄에 빠뜨리며 저들의 더러운 집권욕과 향락을 위하여 일제에게 또다시 나라를 팔아 먹는 죄행까지도 서슴지 않는 박 정희 매국 역도들을 타도하는 사회적 혁명의 도래, 미제 침략군의 철거, 민족적 자립과 자주,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의 념원을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제 아무리 발악적으로 탄압하여도 인민의 편에 선 진보적 경향의 문학은 남조선 문단의 새로운 력량으로서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리라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이 진보적 경향의 문학은 아직 청소하며 자기의 단일한 미학적 강령을 확고히 가지지 못 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강유력한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 하고 있다.

이 문학이 인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아직 산재된 력량으로 자연 발생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선 미제와 괴뢰 도당의 악랄한 탄압에 기인되며 또한 미제가 류포시킨 온갖 반동적 문예 사상의 영향으로 하여 그들 내부에 아직 부르죠아 미학의 여독이 남아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이 문학에는 그 진보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여야 할 부족점들과 제약성들이 있게 된다.

그것은 우선 많은 작품들이 생활 세태적인 현상의 폭로에 머무르고 사회악의 근원을 사회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깊이 파헤치지 못 하고 사말적인 현상을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데 국한하고 있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주인공들인 인민의 비참한 운명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시킴이 부족하고 고립된 개인의 운명 문제로 국한시키고 마는 것이다.

또한 남조선 현실의 모순과 통치배들의 부패 상을 대담하게 정면으로 폭로한 작품들에서까지도 일부 경우에 자연주의적 수법에 의하여 비본질적인 추잡 상을 개입시켜 묘사하는 폐단 때문에 오히려 작품의 좋은 주제 사상을 흐리게

하는 편향을 찾아 보게 된다.

특히 남조선의 진보적 경향의 작품들에 공통적인 제약성은 모순된 현실에 반항하는 주인공이 공격해야 할 명확한 대상을 명시하지 못 함으로써 인민들의 투쟁 목표와 방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못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원쑤들의 검열과 탄압에 중요하게 기인되지만 작가 자신들의 사상적 제약성에도 비롯되는 것이다.

더우기 남조선 작가들이 흔히 의거하고 있는 자연주의, 형식주의, 주관적 심리주의 수법들의 작용은 이 문학의 진보적 내용을 제약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반제 구국 투쟁이 격렬히 일어 나고 있는 오늘의 남조선 사태는 남조선의 진보적 문학 앞에 긴절한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남조선의 모든 량심적인 작가들은 하루 바삐 이 모든 약점들을 극복하고 자기들의 힘을 단합하여 하나의 조직되고 통일된 력량으로 자기의 대렬을 꾸려야 할 것이다. 오직 단결과 통일만이 진보적 문학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조직되고 단합된 력량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사회의 문단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반동적 부르죠아 문예 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해야 하며 동시에 가장 정당한 창작 방법인 진정한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기초한 확고한 미학적 강령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비단 각성된 량심적인 작가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아 관념》의 울타리 속에서 《순수》의 껍질을 벗지 못 하고 고독과 비애와 영탄의 길을 방황하며 번민하는 작가들도 남조선 문학의 이 영스러운 길을 따라 나서게 되여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의 가치는 그 작가가 현실에 얼마나 깊이 침투하여 누구의 편에서 생활을 관찰하고 어느 정도 체험했으며 얼마나 진실하게 높은 형상을 창조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작가를 둘러 싸고 있는 현실은 객관적이다. 따라서 작가는 자기의 낡은 기성 관념으로써 현실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의 본질, 사회적 전형을 탐색하여야 하며 거기서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새것과 낡은 것을 판별해 내고 새 것, 아름다운 것의 승리를 구가해야 한다.

그러자면 남반부의 모든 작가들은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 어찌 하여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파산, 민생고와 죽음의 생지옥으로 화해 버렸는가를 정당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자신을 억압 당하고 있는 민중의 립장에 세워야 한다. 그리 하여 현실에 대한 자기의 립장과 책임을 자각하고 진정한 문학의 길에 들어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물론 모든 작가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정의로운 립장에 튼튼히 세울 수 있게 되며 들끓는 현실을 정확히 통찰할 수 있게 되며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반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 하여 이미 인민의 편에 선 작가들은 물론 모든 남조선 작가들이 시대를 대변하는 고수로서 싸우는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투쟁의 량식을 주어야 할 것이며 반미 구국 투쟁과 조국 통일 위업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작가 자신과 진정한 문학을 옹호하는 길이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문화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다.

〔문답 학습〕

《초생'달 계획》이란 무엇인가

《초생'달 계획》(일명 《반월형 계획》)이란 아세아의 동북부 일본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비률빈 및 인도지나 반도를 지나 아세아 남쪽의 파키스탄에 이르는 이른바 《반월형의 지대》 내에 군사적 《포위권》을 설치한 미제의 침략적 군사 전략 계획이다.

이 전략 계획이 《초생'달 계획》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지역의 군사 기지들을 련결한 《포위권》이 반원(半圓)의 호(弧)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초생'달과 같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기본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의 주요 목적은 저들의 침략적 군사 기지들로 조선, 중국, 민주 월남 등 아세아의 사회주의 나라들을 《포위》하고 《봉쇄》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증대되는 영향력을 막고 세차게 타오르는 그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침략하자는 것이다.

《초생'달 계획》은 악명 높은 호전광이며 조선 전쟁의 도발자인 이전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1949년에 조작해 낸 《반공 군사 전략》의 중요한 한 구성 부분으로서 1953년 말 당시 미국 부대통령이였던 닉슨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닉슨의 이 제안이 미 《국가 안전 회의》에 제기된 그 때로부터 10여 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등 미국 력대의 행정부들은 이 계획을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전략적 계획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분하여 왔다.

1962년 비률빈에서 진행된 아세아 주재 미 군사 고문관들의 비밀 회의에서는 이 계획이 중요한 론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1963년 12월 25일 당시 미 극동 국무 차관 힐즈맨은 《〈초생'달 계획〉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쪽의 조선과 일본으로부터 남쪽의 인도,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활한 궁형의 지대는 정치, 경제, 군사 및 심리적 면에서 미국과 〈자유 세계〉에 중대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떠벌렸다.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에서 미제가 이 계획 작성 및 수행을 그처럼 서두르게 된 것은 당시 아세아 지역에서의 력량 관계의 근본적인 변동과 그것이 미제의 대외 정책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된 데 기인된다.

사실상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 시기까지만 하여도 미제는 아세아 침략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로 장 개석에게 의거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이 기도는 완전히 파탄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53년에 미제는 저들이 도발한 조선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인도지나 전쟁도 불란서의 참패로 끝났다.

사회주의 진영 위력의 급격한 장성

의 영향 하에서 아세아의 모든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였고 반제 민족 해방투쟁이 가일층 앙양되였다. 이것은 미제의 아세아에 대한 침략과 세계 제패의 야망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사태의 이러한 발전에 극도로 초조해진 미제는 소위 《초생'달 계획》을 들고 나와 어떻게 해서라도 극동과 동남 아세아에서 저들의 지반을 부지하며 대륙 침략의 토대를 닦고 나아가서 이것을 중동의 《쎈토》와 구라파의 《나토》와 련결시킴으로써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침략 체제를 조성하려 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이 계획이 나온 지난 10년 간 극동과 동남 아세아에서 온갖 교활한 음모 술책과 로골적인 도발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침략적 《초생'달 계획》을 추진시키기에 광분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우선 이 지역 나라들을 철저히 자기의 지배 하에 두고 저들의 정치적 지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주구들을 사촉하여 이 지역에서 합법적 정부들을 전복하고 친미 분자들로 괴뢰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줌으로써 그들을 부축하고 있다.

1956년에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친불 정권을 뒤엎고 친미적인 느고 딘 디엠을 괴뢰 정권에 들여 앉혔으며 금년 초에는 다시 저들에 더욱 충실한 느구옌 칸 정권을 꾸며 냈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에서 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도 1954년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유린하고 친미적 사나니코네 정부를 조작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합법적 푸마 정부를 저들의 지배 하에 넣었다.

이처럼 매개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는 한편 미제는 이 나라들을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장악하여 모두 하나의 올가미에 끌어들이는 책동을 감행했다. 이른바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세아토)는 바로 그러한 정책의 산물이다.

미제는 1954년 미국, 영국, 불란서와 함께 비률빈, 타이, 뉴질랜드, 호주, 파키스탄으로 구성되는 《세아토》를 조작하고 라오스와 남부 월남을 《세아토》의 《보호 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그것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 수 많은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였다.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 이러한 책동을 감행함과 함께 미제는 《포위권》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본, 남조선, 대만, 비률빈과 각각 쌍무적 군사 조약을 체결하고 이 나라들을 하나의 군사 뿔럭에 묶어 놓기 위한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네아토) 조작에 광분하여 왔다. 이것은 《네아토》와 《세아토》를 련결시켜 이 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북과 남을 단일한 체계로 만들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있어서 일제를 기본 지주로 리용하려는 것이다.

미 국방 차관 질패트릭이란 자가 금년 초 미국 전쟁 책략가들의 모임에서 《미국은 일본이 태평양 서북부의 〈방위〉 부담을 종래보다 더 많이 맡을 것을 바라고 있다…일본이 장래 반드시 조선 반도의 일부를 포함한 구역을 지키기 위한 〈감시 병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지난 10년 간 이 《반월형 지대》 내에 수 많은 군사 기지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로케트 및 핵 무기들로 이 기지들을 보강하고 있다.

북부의 일본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비률빈 및 인도지나 반도를 지나 파키스탄에 이르는 이 지역에 그들은 무려 24만 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켰고 수백 개의 륙해공군 기지들을 배치하였다. 태평양 상에 있는 1,000여 개의 미국 군사 기지와 군수 시설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이 《초생'달 계획》의 구역 내에 설치되여 있다.

미제는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서 80여 개의 비행장과 11 개의 중요 항만 및 많은 중소 항구들을 군사 기지로 전변시켰고 6만 5,000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일본에 225 개 이상의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4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오끼나와에는 40여 개의 미 해공군 및 로케트 기지가 설치되여 있고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여 있으며 대만에도 650 대의 비행기와 5만 5,000 명의 미군이 배치되여 있다. 비률빈과 타이에도 각각 수만 명의 미제 침략 군대가 웅거하여 있다.

한편 미제는 이 군사 기지를 발판으로 사회주의 나라들과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을 부단히 감행하여 왔으며 또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는 괴뢰 도당들을 사촉하여 계속 《북진》 소동을 일으키며 대만 해협에서 장 개석 도당으로 하여금 《본토 수복》을 떠들게 함으로써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제는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공공연하게 파괴하면서 1959년에 라오스에서 전면적인 국내 전쟁을 도발하여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감행하였고 최근에는 또 로골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도발하여 이 나라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려 발광하고 있다.

실로 미제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어 그들은 지난 8월에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미 제 7 함대의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민주 월남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침략 계획을 폭로 반대할 대신에 이 지역 나라 반동들에게 군사 《원조》를 제공해 줌으로써 미제의 침략 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주고 있다.

미제의 온갖 흉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전 장군들에 의하여 작성된 《초생'달 계획》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파탄되고 있으며 그들의 세계 제패의 야망은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과거 다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련되고 각성된 이 지역 인민들은 미제의 이 침략적 야망을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더욱더 파탄되여 가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의 중심 지역으로 되고 있는 남부 월남에서 이 지역 인민과 인민 무장대의 투쟁에 의하여 2만 5,000명의 미군과 수 많은 군수 기재를 동원하여 감행해 온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에 의한 미제의 《특수 전쟁》의 《시험》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저들의 《지주》로 삼아 오던 느구옌 칸이 《대통령》 자리에서 나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이 계획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그처럼 믿어 온 《세아토》는 《동맹국》들 간의 내부 모순의 격화로 하여 유명 무실한 것으로 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골간이 될 《네아토》의 조작 음모도 착잡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 위정자들까지도 오늘 아세아에서 저들의 침략 계획의 파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지금 미국 통치배들 속에서는 남부 월남과 타오스는 《제방의 파렬구로 되였다…타오스의 중립과 남부 월남에서 날로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는》 《캄캄한 동굴》과 같다. 《우리의 아세아 정책에 대한 이 지역 나라들의 불만의 징조는 얼마든지 그 실례를 들 수 있다. 우리의 동맹국들도 우리의 아세아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우리의 아세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절망적인 비명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미국 정부가 그 무슨 《초생'달 계획》이요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아세아 지역에서 다년간 감행하여 온 침략 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오늘 마디마디 동강이 나고 있는 미제의 침략적 《초생'달 계획》은 불원간에 완전히 파산되여 그것이 하나의 파지'장으로 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고 석 무

근로자 제 17 호 (루계 255 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9월 3일 발행 • 1964년 9월 5일

ㄱ—430530 값 40 전

/ 30527 R Č
Americké velvyslanectví /UF/
Tržiště 15
P R A H A 1, Malá Strana č17,19,